



매년 하반기 즈음 농림수산물식품부를 통해 '농림어업생산액' 이란 자료가 발표된다. 그리고 나면 언론에서는 이 통계치에 여러 가지 의미를 덧붙인 기사들을 내보낸다. 다음해의 것이 나올 때까지 이 자료는 품목별 중요도, 산업의 경제적 기여도, 정부지원사업의 우선순위 등을 논하는 자리에서 많은 사람들이 인용하는 자료가 된다. 그뿐이 아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산업을 변호할 때 '우리 분야의 생산액이 총생산액의 몇 퍼센트가 되니 정부의 지원예산도 거기에 걸맞게 몇 퍼센트가 되어야 한다'는 주장의 배경이 되기도 한다. 그러면 많은 소비자, 정책분야 종사자, 그리고 필자와 같은 연구자들도 "그 거 말이 되네" 하고 고개를 끄덕이게 된다.



서옥석 과장 / 농학박사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가금과

가장 최근의 수치를 살펴보자. 돼지 3조 3,197억원, 한우 3조 1,156억원, 닭고기 1조 275억원, 계란 8,537억원이다. 양계분야는 대표선수인 육계·산란계를 합쳐도 1조 8,812억원으로서 돼지의 절반을 조금 넘는 정도이다.

이렇게 생산액으로 등수가 매겨진 이야기를 들을 때 신통치 않은 성적표를 받은 양계 분야에 몸담고 있는 사람들은 슬그머니 기가 죽게 마련이다. 꼴찌 자식을 둔 아버지가 아들의 담임선생 앞에 섰을 때만큼이나 작아지는 것이

다. 프랑스 조각가 로댕, 꼴찌 성적 때문에 예술학교 입학을 세 번째 거부당했을 때 그의 아버지가 이렇게 소리쳤다. “이런 바보가 왜 우리 집에서 태어났는가.”

꼴찌도 생각하는 머리와 말하는 입이 있다. 할말은 좀 해야겠다.

우선 ‘농림업생산액’이란 단어에 포함된 그 ‘생산액’이라는 것이 어떻게 해서 나온 수치인가 하는 점을 따져봤다. 이게 알고 보니 품목별 생산량에다가 생산자 판매가격을 곱한 것이다. 여기 두 가지 품목이 있다 하자. 같은 양을 생산했는데 비싸게 판 것은 생산액이 높고 싸게 판 것은 생산액이 낮게 된다.

예를 하나 들어보자. 사막을 여행하던 일행이 마실 물이 떨어져 생존의 위험을 받게 되어 우물을 파기로 의견을 모으고 일을 시작했다. 천신만고의 고생을 하면서 땅을 파던 중 드디어 땅속에서 물이 솟기 시작했고 파낸 흩더미 속에는 한 덩이의 보석도 묻혀 있었다. 물은 일행이 나누어 마셔 모두의 생명을 건졌고, 보석도 비싼 값에 팔았다. 일행 중 경제에 밝은 사람 하나가 물과 보석의 생산액을 계산하여 일행에게 발표했는데, 물은 공짜로 나누어 마셨으니 전혀 가치 없는 것이 되고, 보석은 큰 생산액을 창출한 것으로 결론이 났다. 이걸 너무 극단적인 비유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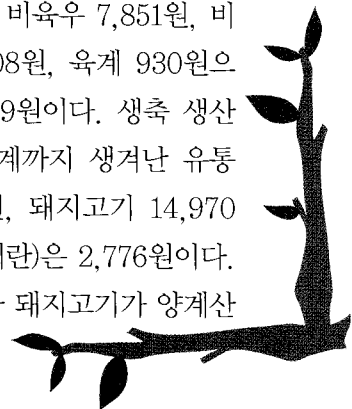
지니고 다니는 수첩을 열어 작년 연말쯤의 기록을 하나 찾았다. 1kg당 한우고기 56,000원, 돼지고기 16,800원, 닭고기 정육 5,842원, 계란 2,048원이라고 적혀있다. 어느 토요일

일 오후 동네 근처 슈퍼마켓에 들러 소비자 가격을 확인해 기록한 것이다. 계란은 16개를 1kg으로 환산했다는 내용도 적혀있다. 그 날 그 매장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여러 가지 물건을 사갔을 것이다. 계란과 닭고기를 구매한 사람도 있고, 쇠고기, 돼지고기를 구매한 사람도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 사람들이 지불한 금액을 품목별로 따져보자.

우선 닭고기와 계란 구매자가 지불한 금액은 kg당 평균 3,945원이다. 현대 같은 중량의 값으로 쇠고기 구매자는 14.2배, 돼지고기 구매자는 4.3배 많은 금액을 지불했다. 이러한 결과를 ‘생산액’ 계산방식을 가지고 성적을 매긴다면 양계산물보다 쇠고기는 14.2배, 그리고 돼지고기는 4.3배의 점수를 받는다. 소비자들에게 많은 부담을 주었기 때문에 좋은 성적을 받게 된 것이다.

다른 축산물이 닭고기나 계란보다 식품적 가치가 높아서 값도 비싸고 국가 투자의 우선 순위에서 대접을 받는 것이라면 할 말이 없다. 그러나 필자는 이제껏 쇠고기, 돼지고기가 닭고기나 계란보다 14배 또는 4배 이상 우수한 식품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다.

정부통계기관에서 발표한 생산비를 살펴보자. 생체 1kg당 생산비가 비육우 7,851원, 비육돈 1,830원, 계란 1,408원, 육계 930원으로 양계산물 평균은 1,169원이다. 생축 생산 단계에서 소비자 구매단계까지 생겨난 유통 마진은 쇠고기 48,149원, 돼지고기 14,970원, 양계산물(닭고기와 계란)은 2,776원이다. 이 수치로 볼 때 쇠고기나 돼지고기가 양계산



물보다 중요한 산업으로 치부되는 중요한 이유는 생산비가 비싸게 먹힌다는 점과 유통마진이 높다는 두 가지 요인 때문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이번에는 3조 3,197억원의 생산액으로 1위를 달리는 돼지, 3조 1,156억원의 생산액을 자랑하는 한우, 이보다 훨씬 밑도는 생산액 보유자로서 알과 고기를 합쳐 1조 8,812억인 닭산업을 각각 국민들에게 무엇을 얼마나 제공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자.

국민 1인당 기준으로 한우고기 8.4kg, 돼지고기 19.4kg, 양계산물 21.8kg(닭고기 8.8, 계란 13)이다. 결국 닭고기와 계란은 가장 싼값에 생산해서 최저의 유통마진으로 최대 물량의 축산식품을 국민들에게 제공하는 모범산물이다.

‘일산화이수소’라는 화합물이 있다. ‘과산화수소’라는 물질에서 산소원자 하나가 빠져나간 것이다. 혹시 과산화수소는 또 뭔가 하는 분이 있어 더 설명을 드린다면 약국에서 파는 옥시풀이라는 소독약을 말한다. 이걸 상처에다 바르면 흰 거품이 일면서 활성산소가 발생하는데 이 활성산소가 소독력을 발휘한다. ‘일산화이수소’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과산화수소에 대한 설명이 길어졌다.

1997년 Nathan Zohner란 14세 소년이 ‘일산화이수소’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설명을 전개했다. ‘액체상태에서 매년 수십만의 목숨을 앗아가고, 기체상태에서는 심각한 화상을 일으킨다. 고체상태에서는 교통사고를 일으

키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이런 식이다. 그 결과 이 물질의 퇴치에 서명한 사람이 86%였고, 12%가 잠시 결정을 유보했으며, 2%만이 퇴치에 반대했다. 사실 이 물질은 ‘물’이다. 물을 화학식 명명법에 따라 부른 것뿐인데, 2%의 사람만이 ‘일산화이수소’가 물을 의미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이다. 혹시 ‘농림어업생산액’이 지닌 정확한 의미를 몰라 양계산업의 기여도와 가치가 왜곡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축산은 인간의 생존에 필요한 먹을거리를 생산하는 산업이다. 그러기에 공익성을 지닌다. 먹을거리산업이 지닌 중요한 본질적 가치와 소명의식은 생산자가 지녀야 할 중요한 덕목이다. 정책은 이러한 사항을 산업이 기억할 수 있도록 환기시키는 것을 소홀히해서는 안 된다. 공익성을 유지해야 하는 부문에서는 ‘부의 창출’이 전부가 되는 시장만능주의나 경제적 척도 이상의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든다.

아쉽게도 ‘농림어업생산액’ 순위가 산업의 가치와 기여도를 판단하는 주요지표의 역할을 차지하고 있는 한 양계부문의 성적은 꼴찌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누가 뭐래도 닭고기와 계란은 최소의 투입으로 최대의 생산성을 올리는 산업이다. 그뿐인가? 국가와 국민들에게 가장 적은 부담을 끼치면서 최대의 축산식품을 공급하고 있는 효자중의 효자산업이다. 